

韓國所在 前近代 韓日關係史 資料에 대하여

—國史編纂委員會 所藏資料와 활용을 中心으로—

李 薰

머리말

I. 史料의 種類와 特徵

1. 對馬島宗家文書
2. 朝鮮史編纂會의 寫眞·유리(glass) 필름
3. 奎章閣所藏謄錄類

II. 對日關係 資料의 刊行상황과 問題點

1. 日錄集
2. 史料集

III. 情報化時代에의 對應

맺음말

머리말

이번 '韓日關係 史料研究의 現段階를 생각하는 모임'은 東京大學 史料編纂所의 「日本史」編纂을 위한 海外史料 收集, 특히 東아시아지역에서의 日本關係 史料에 대한 관심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사 사료를 취급하는 機關이나 圖書館에서 目錄集이 간행되어 이미 한일관계 史料현황에 대한 윤곽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國史編纂委員會(이하 '委員會'로 약칭) 所藏 資料를 중심으로 사료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간행상황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中葉 開港 以前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시기의 委員會 소장 자료 가운데 많은 量을 차지하는 것이 朝鮮總督府의 植民地 政策하에서 朝鮮史編纂會가 購入했거나, 採集, 또는 筆寫한 자료들이다. 「朝鮮史」 편수를 위해 한국·일본·만주 등지에서 수집한 방대한 사료는 고대에서 근대까지를 망라하고 있지만, 對馬島宗家文書와 같이 前近代 韓日關係 史料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수집 자료 가운데 일부는 編修會가 이미 史料集으로 간행한 것도 있으나,¹⁾ 대부분은 60여년전 수집만 해놓고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들로 1945년 光復 이후 委員會가 소장·관리해 오고 있다. 이들 자료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정리가 시작되면서 자료 현황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는데, 對馬島宗家文書는 물론, 현재는 寫眞·유리필름까지 정리되게 되었다. 이하 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I. 史料의 種類와 特徵

1. 對馬宗家文書

對馬宗家文書(이하 '宗家文書')는 글자 그대로 대마도 宗氏(宗家)가 對馬島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文書群으로 近世 藩政文書가 대종을 이룬다. 그러나 대마도는 전 근대 조일 間接通交 속에서 對朝鮮外交窓口 役割을 해온 만큼, 多量の 韓日關係 史料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는 '증가문서'라 불리는 문서가 7 곳에 분산·소장되어 있으며, 전래 경위에 따라서 자료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다.²⁾

한국의 國史編纂委員會에 소장되어 있는 증가문서는 朝鮮總督府가 1926년과 1938년의 2번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舊藩主 宗家로부터 문서를 購入함에 따라, 宗家文庫(日本 長崎縣下縣郡嚴原町 万送院)에 소장되어 있던 문서의 일부가 朝鮮史編修會 修史館 中村榮孝의 임회하에 編修會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들 자료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委員會에서 소장·관리해 오고 있다.

委員會 소장 宗家文書는 주로 朝日 通交·貿易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 1) 「朝鮮史料叢刊」은 1932~1940년까지 모두 22책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委員會에는 18책만이 전하고 있다.

朝鮮史料叢刊	委員會所藏	朝鮮史料叢刊	委員會所藏
高麗史節要		制勝方略	
海東諸國紀		陽村集	
軍門勝錄		保閑齋集	
唐將畫帖	1934	朝鮮早附錄	不明
政院傳教		緒武定寶監	
亂中日記·壬辰狀草	1935	紹修書院勝錄	
事大文軌		高麗史節要(補刊)	1938
眉巖日記草 I~V	1935~1938	宗家朝鮮陣文書解說	1937
亂後雜錄	1936	正德朝鮮信使登城行列圖	
鎮管官兵編伍冊殘卷		通文館志	
草本懲誌錄	1936	朝鮮通交大紀	

이밖에, 자료 가운데 전체를 인쇄하기 곤란한 자료나 문서·화상·필적 등, 225종은 부분 인쇄하여 해제를 붙여 「朝鮮史料集眞」(3권)으로 간행되었다. 단, 委員會에는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朝鮮史料集眞」 자체는 없으며, 「朝鮮史料集眞」解說1-3. 1-3, 5와 1996년 일본의 韓國書籍センタ에서 복간한 「朝鮮史料集眞」1만 있다.

- 2) 한국의 國史編纂委員會를 비롯하여, 일본에는 國立國會圖書館·東京大學史料編纂所·慶應大學圖書館·對馬島歷史民俗資料館, 文化廳, 東京國立博物館의 7곳에 흩어져 있다(田代和生, 「宗家文書」について, 「朝鮮通信使記録」別冊, ゆまに書房, 1999).

대마도 宗家文庫에 보관되어 있을 당시부터 어느 정도는 分類·整理되어 있던 것을 반출해 온 것이다. 그러나 藩政 자체에 관한 문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4세기 중엽 宗氏의 支配體制가 안정되는 시기부터 1872년 明治日本이 廢藩置縣을 단행할 때까지 거의 540년간의 문서가 망라되어 있는 이 사료군은, 日記류를 비롯한 각종 記錄類·古文書·地圖·繪圖·印章 등, 다종다양한 사료를 포함하고 있다.

委員會에서는 1988~1996년까지 9년에 걸친 본격적인 정리·조사를 거쳐 현재 소장 자료의 총 수량은 28,783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³⁾ 종류별로 본 수량은

記錄類 6,592冊, 古文書類 11,242枚, 書契 9,442通, 繪圖類 1,485点, 印章 22箇

이다.

이중 정리가 끝나 목록집이 간행된 記錄類·古文書類·書契의 3종의 성격을 보기로 한다.

① 記錄類

對馬藩은 일찍이 1634년부터 藩의 기록으로서 『每日記』를 작성하고 있었다. 17세기말 경에는 藩政기구가 정비 확충됨에 따라 記錄·執筆만을 위한 書役(佑筆)도 두게 되었다. 약 50개로 파악된 藩政機構와 그 밑의 係에서는 이러한 書役들이 『每日記』를 비롯하여 어떤 特定 目的이나 必要에 따라 많은 기록을 作成·編輯하였다. 委員會 소장 기록류 6,592책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기류와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信使記錄』을 비롯하여 중세부터 근대초기의 한일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귀중한 자료들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3) 委員會 소장 증가문서는 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 수량에 약간의 산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전쟁(6.25)을 거치면서도 문서 보존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거의 모든 사료가 무사히 남을 수 있게 되었다.

<표 1> 대마도증가문서 기록류 현황

내용	수량	내용	수량
信使記錄	1,157冊	參判使記錄	392冊
每日記	360	8鄕村帳	20
譯官記錄	297	判物帳寫諸印判帳	28
裁判記錄	195	日帳書拔	61
第1·2·3船送使記錄	291	諸方來狀	12
以酏庵·第4船送使記錄	82	諸家系譜·系圖	48
1特送使記錄	91	吉宗様御代公私御用書拔	27
副特送使記錄	83	諸目錄	68
万送院送使記錄	104	分類紀事大綱	94
1巡漂差使記錄	88	書契控	10
2巡漂差使記錄	74	條書書付	83
3巡漂差使記錄	56	書翰寫	27
4巡漂差使記錄	37	善隣通書	41
5巡漂差使記錄	28	倭館修理記錄	19
6巡漂差使記錄	12	申舍内密	16
7巡漂差使記錄	9	各藩主實錄	58
8巡漂差使記錄	4	御連狀	29
諸巡漂差使記錄	167	異船一件	23
朝鮮日本間往復書	126	以酏庵記錄	34
書狀控·往復書狀控	457	送使記錄	23
知近錄	7	人蔘關係기록	27
津島紀事	11	朝鮮御代官記錄	35
經國大典大明律	19		

*<표 1>은 泉澄一씨의 「對馬島宗家文書의 분석연구」(「國史館論叢」7, 1989)를 가공한 것임.

위의 <표 1>은 여러 종류의 기록들을 내용별로 대략의 수량을 파악해 본 것이다. 이 중에서는 『信使記錄』의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⁴⁾

『信使記錄』은 전근대 조일간의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交隣外交를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委員會에 약 1,157책이 전하고 있다. 조선은 왜란 직후 1607년의 回答兼刷還使를 포함하여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通信使를 일본에 파견했다. 그리고 1811년 이후에도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江戸幕府가 崩壞되기 직전까지 通信使 파견 교섭은 推進中에 있었다. 委員會에는 이 가운데 丁巳信使(1617, 元和信使)를 제외하고는 성사되지 못하고 만 大坂易地聘禮 교섭에 관한 기록까지도 모두 소장되어 있어서, 통신사에 관한 전 사행의 기록을 개관할 수 있다.

委員會 소장 통신사기록은 전 사행의 기록을 망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使行時마다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 있지는 않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1655년의 乙未信使(明曆信使) 이전의 기록은 아주 疏略한 편이다.⁵⁾ 비교적 記錄이 豊富해지는 것은 1682년의 壬戌信使(天和信使) 이후부터로 책수도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壬戌信使에 관한 기록은 164책, 辛卯신사(1711, 正德信使)는 167책, 己亥신사(1719,

4)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증가문서에 대한 해제로는, 泉澄一씨의 「對馬島宗家文書의 分析研究」(「國史館論叢」7, 1989), 李薰의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對馬島宗家文書」(『역사와 현실』28, 1998)가 있다.

5) 明曆이전의 「信使記錄」은 東京國立博物館에 비교적 많이 소장되어 있다.

享保信使)는 139책, 戊辰신사(1748, 延享信使)는 211책, 甲辰신사(1764, 寶曆信使)는 209책, 辛未신사(1811, 文化信使)는 130책 가량 된다. 그리고 大坂易地聘禮 교섭에 관한 기록도 약 48책이 전한다.

委員會의 『信使記錄』은 모두 清書本으로 慶應義塾大學의 下書本으로부터 清書한 것으로 보인다. 단, 동일종류의 『信使記錄』이라 하더라도 분실·대여 등을 고려해서인지 여러 세트의 清書本이 있다. 목록집에는 세트별로 등록되지 않고 연대순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같은 연대라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청서본들이 섞여 있으므로, 목록의 이용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단, 이번에 ゆまに書房에서 간행한 마이크로 필름판 『朝鮮通信使記錄』에서는 여러 종류의 清書本 중에서 目錄이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동일종류의 清書本만을 선택하여 편집하였다.

② 古文書類

委員會 소장 11, 242점의 古文書 역시 近世文書가 주류이며 明治初期(19세기 후반)까지의 각종 문서가 망라되어 있다.

이들 고문서는 交渉 對象 및 現場을 중심으로 3종류의 文書群으로 나눌 수 있다.⁶⁾ 우선 釜山 倭館을 場으로 하는 조일 通交·貿易과정에서 생산된 문서군은, 통신사나 問慰譯官 및 기타 外交使行, 漂流民의 送還에 관한 外交文書와 覺書·書狀·貿易관계 證文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對馬藩 자체의 行政에 관한 문서군과 幕府관련 문서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⁷⁾ 막부관련 문서에는 對馬藩主가 幕藩制 아래서 對朝鮮 外交를 家役으로 맡고 있었던 만큼, 通信使 招聘에 관한 伺書 등이 포함되어 있다.

委員會 소장 고문서의 큰 특징은 문서의 앞뒤가 잘려나가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또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들어 있어서 고문서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다. 그렇지만 이들 고문서 가운데는 不發문서로 끝난 草案이 더러 있기

6) 고문서를 내용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대마번의 번정이나 대조선통교가 번정기구 안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복원해 본다는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지 모른다. 이런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고문서의 전래 상태가 번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문서들 끼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로 남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국편소장 고문서는 문서의 등록시 이미 문서들이 낱장으로 해체되어 각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문서들 끼리의 유기적인 관계는 추적하기 힘들며, 편의상 내용별로 다루었다.

7) 대마번 자체의 행정에 관한 문서로는, 대마번주에 종사하는 武士에 대한 扶持·扶助관계 문서를 비롯하여 儉約·送使·勤役·家中拜借, 대마도내 8郷의 토지 및 기타 領地, 대마번의 출장소가 있던 長崎·京都·大坂 관계 문서 및 각종 증문 등이 있어서 대마번정의 모습과 규모를 살필수 있다. 한편 대마번주는 장군의 신하로서 막부제 아래서 대조선외교를 家役으로 맡고 있었고 江戸참근이 의무화된 다이묘(大名)의 하나였으므로 막부관련문서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통신사 초빙에 관한 문의를 비롯하여, 江戸참근과 관련하여 막부에의 예물獻上을 문의한 伺書, 또 번의 재정과 관련하여 막부에 재정원조를 요청한 청원서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막부말기 일본의 개항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마도 해역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異船의 출몰에 대해 막부에 그 취급을 문의하는 문서도 다수 들어있어 막부 및 대마번의 대응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들도 있다.

때문에 기록류나 고문서의 원본 등과 면밀히 대조할 경우 대마번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의도를 알 수 있기도 하다.

③ 書契

書契는 交隣관계에 있던 조선과 일본이 서로 통교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던 외교문서로, 현재 국사편찬委員會에 9,442점이 전하고 있다. 이들 서계는 모두 조선이 일본(대마번)에 작성해 준 서계이므로, 생산자를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조선의 對日外交文牘이지 對馬島宗家文牘은 아니다. 委員會에서도 書契의 이런 성격을 감안하여 對馬島宗家關聯文牘로 취급하고 있으며, 서계를 굳이 宗家文牘 안에 넣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른다. 또 조선과 일본에 여러 종류의 필사 書契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복되지만, 委員會 소장 書契는 그것이 거의 모두 原本이라는 점과 生産時期, 내용, 사료로서의 연속성 등으로 볼 때 筆寫서계와는 다른 사료적 가치가 있다.

몇가지 사료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委員會 소장 서계는 시기적으로 倭亂이 끝나고 막부와 통교가 재개된 직후인 1614년부터 明治정부 초기인 1872년까지의 258년 동안의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前近代에서 近代初期에 이르는 시기의 통교 변화를 살필 수 있다.

둘째, 委員會 소장 서계는 거의 조선측이 일본에 작성해 준 答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조일 통교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禮曹와 東萊府使가 對馬藩主 및 각종 통교자에게 보낸 답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⁸⁾ 그중에서도 예조(參判·參議·佐郎)가 대마번주에게 보내는 正本이 주류를 이루며, 東萊府使와 釜山僉使가 대마번주에게 보낸 副本도 상당수 들어 있다.⁹⁾

셋째, 내용상으로는 대마번이 조선에 파견한 年例送使와 不時의 大小 사자에 대한 문서가 모두 망라되어 있으며, 外交儀禮의인 것에서부터 日常의인 교류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일본 및 대마번간에 현안이 되고 있던 모든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委員會 소장 서계는 116점(委員會 등록번호 No.8525, No.9328~9442)을 제외하고는 9,326점의 서계가 모두 원본으로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서계의 外形까지도 살필 수 있다. 서계의 외형에 나타난 書式의 변화나 서식에 어긋난 '違式'書契는 조일간의 相互認識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사료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¹⁰⁾

다섯째, 委員會 소장 서계는 사본과 달리 禮物의 物目을 적은 別幅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¹¹⁾ 별폭은 예물로 보내는 품목이 거의 정해져 있고 으레 본서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人蔘·虎皮 등의 예물 품목은 외교의례를 통한 물품의 이동 등, 전근대 조일 국제무역의 한 단면과 실태 파악을 위해 새로 접근할 수 있는

8) 국편에는 조선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준 국서는 없다.

9) 그러나 문위역관의 파견, 일본인 표류민(和漂)을 송환 할 때에는 조선이 먼저 송서를 보냈다.

10) 대마번은 조선에서 받은 답서를 막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막부에는 사본과 和解를 제출하여 통교에 관한 사안을 보고했기 때문에, 宗家文庫에는 조선에서 받아들인 원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11) 서계는 교섭사안을 적은 本書와 人蔘이나 虎皮·綿紬·白苧布 등, 예물의 물목을 적은 別幅의 2매가 1셋트(통)를 이루었다.

소재라 할 수 있다.

이섯째, 사료로서의 연속성 면을 보면 委員會 소장 서계는 散逸의 정도 차는 있으나 258년 동안의 서계가 비교적 빠짐없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교체개 직후부터 1635년 봉교체제가 재편되는 시기의 서계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산일 정도가 심한 편이다. 특히 봉교체제가 재편되는 시기를 전후한 1634·1635년의 서계가 산일이 심하며, 1684·1685년의 서계는 아예 1통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1868~1872년 까지 明治정부 초기의 서계가 약간 남아 있어서, 明治維新 이후 대마도를 통한 봉교교섭이 膠着을 거듭하면서도 漂流民 送還 등, 일상적인 교류는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舊幕府時代의 外交慣行을 유지하면서 대마도로 하여금 대조선 외교를 대행하게 했던 明治初期 韓日關係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단, 앞서왔듯이 서계에도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同文彙考』, 『兩國往復書牘』, 『本方朝鮮往復書』 등의 필사서계와 대조가 필요하다.¹²⁾

이상에서 委員會 소장 對馬島宗家文書는 記錄類·古文書·書契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근대 한일관계의 실태를 밝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第1級의 중요한 자료임을 보아왔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단 사료 이용시 몇가지 주의에 대해 보기로 한다.

우선, 宗家文書는 일본의 近代化 및 朝鮮 侵奪과정 속에서 分散·소장되면서 같은 성격의 문서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信使記錄』을 비롯하여, 『朝鮮方每日記』, 『代官記錄』, 『分類紀事大綱』, 『藥材質正記事』, 『裁判記錄』, 『朝鮮本方往復書』 등과 같은 자료는 원래 1세트의 문서가 흩어져 있으므로 꼭 대조해서 보아야 한다.

둘째,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전근대 조일통교관계 자료로는 『王朝實錄』·『備邊司牘錄』·『承政院日記』와 같은 政府年代記, 예조에서 작성한 각종 『牘錄』류와 記錄¹³⁾, 東萊府와 같은 地方官衙에서 작성한 기록 등이 있다. 이들 자료중 牘錄類는 通信使 관련 牘錄을 제외한 대부분이 1637~1754년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교류를 연구하는데는 중요한 자료이나 18세기 중엽 세기의 이후의 朝日關係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對馬島宗家文書는 상대적으로 18세기 이후의 기록이 풍부하고 체계도 잘 잡혀 있으므로, 한국측 자료와 상호보완해서 검토할 경우 전근대 조일 통교내용의 변화를 추적하고 복원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히 19세기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사의 공백으로 인해, 19세기에 들어 通信使斷絶 및 貿易沈滯로 인해 交隣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明治維新을 계기로 조일관계가 하루 아침에 交隣에서 侵奪로 變質된 것처럼 誤解되고 있는 만큼, 宗家文書의 活用이 기대된다.

셋째, 宗家文書 안에는 각종 형태의 公貿易과 私貿易 관계 자료,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密貿易에 관한 자료도 약간 전하므로, 대마번이 조선을 상대로 벌이던 여러 국면에서의 경제활동을 살필 수 있다. 조선측 문서가 안정기의 조일통교체제를 전제로

12) 李 薰, 「조선 후기 對日外交文書의 사료적 특징- 국사편찬委員會 소장 書契를 중심으로-」(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 『韓國史學論叢』 下, 1992).

13) 『邊例集要』, 『交隣志』, 『增正交隣志』, 『通文館志』, 『春官志』 등이 그것이다.

작성된 것이라면, 종가문서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거래 품목과 수량, 決裁價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실제로 거래된 전체무역량과 규모는 물론, 거래 내역의 변동 등, 對日貿易의 실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일교섭의 최일선에 있었던 朝鮮側 譯官의 財産形成이 위에서 든 외교 및 貿易활동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록들은, 國內 商業資本 形成과의 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네째, 종가문서의 每日記에는 조선측 譯官과의 교섭이나 사소한 情報, 倭館과 東萊府 주변의 민간 레벨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접촉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왜관을 장으로 하던 조일통교의 실태 파악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조선정부측 입장이 반영된 한국측 자료와 대조해서 검토한다면, 관민 레벨에서의 전체 통교구조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매일기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날씨(비·구름·바람)는 실제 배의 출입이나 開市(사무역)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기상정보로 해양학 등, 새로운 연구분야의 정보로 이용될 수도 있다.

2. 朝鮮史編修會의 사진·유리필름자료

『朝鮮史』를 편찬할 목적으로 朝鮮史編纂委員會가 1925년 朝鮮史編修會(이하 編修會)로 개편된 이래,¹⁴⁾ 1938년까지 編修會가 수집한 자료는 圖書 4,590책, 寫眞 4,510권, 文券·畫像·篇額 453점으로 알려져 있다.

編修會가 수집한 자료 가운데 사진·유리필름 자료는 주로 1927.5~1935.9 사이에 한국·일본·만주지방에 산재해 있는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2,263종, 5580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자료는 1995년부터 본 委員會의 고문서 정리방법에 따라 분류·정리되기 시작되어 1998년에는 각 문건마다 간단한 해제를 붙인 목록집(『사진·유리필름』(상·하))이 간행되었다.¹⁵⁾ 전근대 대일관계에 관한 자료들은 양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다종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文字자료는 대부분 對外關係편과 朝鮮國王文書에, 通信使 遺墨과 같은 繪圖류는 畫譜편에 수록되어 있다.

사진·유리필름 자료의 종류 및 수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14) 『朝鮮史』는 1932~1938년까지 35권으로 간행되었으며, 주로 『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의 기존 사서를 편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5) 『사진·유리필름목록』(상·하)은 조선사編修會가 한국·일본·만주 등지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委員會의 古書分類法(史部分類法)에 따라 정리했다. 따라서 동일한 대일관계자료라 하더라도 여러 항목으로 흩어져 있어 찾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표 2> 사진·유리필름 현황

種類	寫眞	유리필름 Glass Film	叢刊	集眞	朝鮮史	委員會 貴重本
告身類	12건	* 3건		2		* *
國書	12	14				
書契	11	12		4·6		
松雲大師書狀	1	1		3		
豊臣秀吉關係 (朱印狀など)	10	10(40매) * 24건(48매) ** 7(9매)	* 宗家朝鮮陣文書			
5大老奉書	1	1				
徳川家 關係	7	11				
老中奉書	1	1		5		
諸大名家	1	2				
宗家關係 (判物など)	4	4				
太政官文書	6	6				
朝鮮送使國次書契之覺	1	12(86매)		2		
信使·倭館記録	2					
正徳通信使行列(登城)	1 (8매)	1(10매)		5		★
通信使關係	4	4(31매)				
通信使遺墨	7	1				★
日本僧交流	1					
朝鮮國城城之圖		1(6매)		2		
朝鮮古地圖	4					
朝鮮繪圖	1	1(32매)				
釜山倭館圖	1			4		
壬亂關係	4	2				
其の他						
計	91건 이상	118건 이상 (320매이상)				

<표 2>를 보면, 사진자료의 총수량은 文字자료와 繪圖자료를 합쳐서 90건이 넘는다.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조선국왕이 일본의 受職倭人에게 준 「告身類」를 비롯하여, 통신사의 일본 파견시 조선국왕과 幕府將軍이 교환한 조일 양국의 「國書」(別幅 포함), 조선과 대마번이 주고받은 「書契」 등의 외교문서, 豊臣秀吉 관련 문서(朱印狀·判物·知行目錄), 徳川家 관련문서(徳川家康·家光·秀忠의 御内書·朱印狀), 「老中奉書」, 宗家 관련문서(判物 등),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太政官文書」 등이 수록되어 있다.

繪圖류로는 「通信使行列圖」를 비롯하여, 「朝鮮繪圖」·「通信使遺墨」·「朝鮮方域地圖」·「朝鮮城城之圖」·「朝鮮古地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유리필름의 총수량은 118(320매)건 이상으로 사진자료와 기본적으로 중복된다. 그러나 豊臣秀吉의 朱印狀과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등과 같이 사진자료에는 없는 것들이 수록되어 있어 수량에 큰 차이가 난다.¹⁶⁾

16) 사진자료와 유리필름이 내용상으로 거의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수량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신수길의 朱印狀이 추가된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정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진자료는 동일한 성격의 문서는 매수에 상관없이 1

사진·유리필름은 朝鮮史編修會가 개인 소장이나 고래의 명가, 舊宗武志 伯爵家, 京城帝大附屬圖書館, 東京帝大史料編纂所의 자료를 채집한 것이므로 委員會의 유일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자료집으로 간행되기도 했으므로 처음 공개되는 자료도 아니다. 그러나 문서의 정리 및 목록 간행을 계기로 자료의 종류나 수량의 전모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몇가지 자료의 특징과 이용시 유의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① 우선 사진자료는 『사진·유리필름목록』(상)에, 유리필름은 『사진·유리필름목록』(하)에 따로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사진자료는 이 유리필름을 인화한 것으로 사진자료와 유리필름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복되어 있다. 한국전쟁과 委員會의 몇 번에 걸친 이사 때문에 이들 자료에는 약간의 산일이 있었던 것 같다. 동일자료라 하더라도 이가 빠진 것이 있으며, 사진자료에만 있고 유리필름에는 없는 것, 또 유리필름만 존재하고 사진은 없는 것들이 더러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시기적으로 봤을 때, 15세기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編修會가 수집한 다른 한일관계 자료가 그렇듯이, 사진·유리필름도 비교적 壬辰倭亂 직전부터 丁酉再亂 때까지의 자료가 많다.¹⁷⁾ 특히 왜란을 전후한 豐臣秀吉의 朱印狀이 많으며, 宗氏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다. 朱印狀은 豐臣秀吉이 宗義調에게 조선 침략시 從軍을 명령한 것을 비롯하여, 豐臣秀吉에의 臣服과 所領 安堵에 관한 것, 대부분 宗氏(宗義調 및 宗義智)에게 준 것들이다.

③ 사진·유리필름의 일부는 이미 『朝鮮史料叢刊』이나 『朝鮮史料集眞』에 수록된 바 있으나, 전체 자료의 일부만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사료집 만으로는 자료의 전모를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유리필름목록의 간행으로 문서 전체를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마도의 문인 발행에 관한 기록인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은 『朝鮮史料集眞』2에 약간 소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나, 유리필름에는 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은 1572~1576년분에 1510~1515년분을 1586년에 필사하여 철한 것으로, 일본내 受職倭人·受職書人の 送使 과견을 비롯하여, 印이 원래의 소유주를 떠나 對馬島人の 손에 넘어 가 있는 등, 조일통교의 특수성, 또는 임진왜란 직전의 조일통교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지적된 바 있다.

④ 사진·유리필름자료의 원본이 본 委員會에 전하는 자료들은 貴重文書로 취급되어 그동안 열람이 어려웠으나, 목록의 간행으로 열람이 한결 쉬워졌음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먼저 조선국왕이 일본의 受職倭人에게 주었던 告身(教旨)은 12건이 '국왕 문서' 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皮古三甫羅(1485년, 대마도 早田氏)·皮古而羅(1503년)에게 준 告身과 信時羅·平長親·平松次에게 준 것은 『朝鮮史料集眞』2에 영

건으로 파악하여 매수는 ()로 처리하였다. 이에 비해 유리필름은 동일한 성격의 사료가 몇장이 있더라도 필름 1매를 1건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17) 黑板勝美가 『朝鮮史料叢刊』의 선별기준을 임진왜란 부각에 두었듯이, 編修會가 임진왜란 관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던 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사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유발케 하려는 의도에서였다는 지적이 있다(金性玟, 『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1989).

인·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信時羅·平長親·平松次의 告身은 현재 국사편찬委員會에서 귀중문서로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며, 한국과 일본에 현존하는 14개의 告身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 豊臣秀吉의 朱印狀은 목록의 附記사항을 보면, 소장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과 委員會 貴重資料로 취급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가운데 委員會 소장분(24건)은 이미 1937년 編修會가 「宗家朝鮮陣文書」(朝鮮史料叢刊 19, 1937)에 影印·複製하여 수록한 宗武志 伯爵家 소장분(23통)과 거의 一致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유리필름 작성시 編修會는 이미 사료수집이 끝나 編修會 소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유리필름으로 찍어 보관했던 것 같으며, 사진자료보다 豊臣秀吉의 朱印狀이 더 많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소장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朱印狀은 원본이 委員會에 없는 것들이며, 宗武志 伯爵家 소장분일 가능성이 크다.

繪圖자료 가운데 「正德信使登城行列圖」 역시 委員會가 귀중자료로 취급하고 있는 것들로 원본의 일부분(國書·正使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이다. 委員會는 현재 이들 繪卷의 훼손이 심해 「正德信使登城行列圖」등을 CD-ROM으로 만들어 열람을 시도하고 있어 필름자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나, 사료 수집과 보존에 기울인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록에는 朝鮮史編修會 소장으로 되어 있어 國史編纂委員會에 그 原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委員會에 원본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의 결여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 예를들면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서계 12통 가운데, 委員會에 원본이 존재하는 것은 오란다인 하멜 일행의 朝鮮 漂着에 관한 禮曹參判 朴世模의 답서(No.1212)와 막부장군(德川綱吉)의 사망 고지에 대한 예조참판 閔鎮遠의 답서(No.2813) 2건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委員會의 원본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것들로, 1637년 鬱陵島 釣魚차 도해한 伯耆州 米子村 어민의 송환에 관한 서계, 倭館의 移管 요구에 대한 서계는 「朝鮮史料集眞」 4·6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측의 「同文彙考」나 일본측의 「本邦朝鮮往復書」·「兩國往復書牒」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서계의 외형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진·유리필름 자료도 의미가 있다.¹⁹⁾

3. 奎章閣所藏 謄錄類 가운데 對日關係 謄錄

조선시대 中央(6조)과 地方의 官衙에서는 典例나 典故를 위해 執務 사항에 대한 관아의 문서, 또 관아와 관아가 주고받은 문서를 謄寫해서 備置해 두었다. 謄錄은 날짜별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도 있고, 특정사업이나 행사와 관련된 종합보고서 형

18) 국사편찬委員會에는 「宗家朝鮮陣文書」(영인,복제)는 전하지 않으며, 「宗家朝鮮陣文書解説」만이 있다. 舊宗武志 伯爵家 소장분은 1592~1599년까지의 것이 18통, 연대미상이 5통이다.

19) 국서나 서계는 本山彦一씨의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이 교환한 國書는 물론, 別幅과 皮封 까지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식의 등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어느 형식이건 등록은 永久保存할 가치가 있는 국가의 중요문서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조선시대 公文書 작성 내지는 保存方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913년 <朝鮮總督府圖書目錄>에 의하면 당시 현존하였던各司의 謄錄류는 158종, 567책에 달했다. 이중 서울대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는 것 가운데 조선후기 對日關係에 관한 등록류는 30종(102)책으로 파악된 바 있다.²⁰⁾ 『通信使謄錄』을 비롯한 대일교섭과 관련된 등록류는 대부분 예조와 그 屬司인 典客司²¹⁾에서 편찬하였으며, 대일교섭의 창구였던 東萊府, 京畿道 廣州府에서도 작성되었다. 등록류는 委員會 소장은 아니지만, 委員會의 간행사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뒤의 <표 3>에 목록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며, 사료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²²⁾

II. 刊行상황과 문제점

국사편찬委員會는 사료 수집과 더불어 史料集을 刊行함으로써 學界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소장사료를 정리하거나 또는 수집된 사료 가운데서 간행대상 사료를 선정하여 자료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전근대 한일관계 자료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1) 목록집

① 對馬島宗家文書

먼저 대마도증가문서는 현재 문서의 종류별로 목록집만이 간행된 상태이다(3종 8책).

記錄類: 『對馬島宗家文書記錄類目錄集』 (1책)

書契: 對馬島宗家關係文書 『書契目錄集』 I ~ V (5책)

古文書類: 『對馬島宗家文書古文書目錄集』 I · II (2책)

증가문서는 아직 자료집 간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信使記錄』 중의 일부가 일본의 ゆまに書房에서 Micro Film 형태의 책으로 간행된 바 있다.²³⁾

② 編修會의 사진·유리필름목록

『사진·유리필름』(상·하): 2책

20) 등록류의 일부는 장서각에 이관, 장서각 도서는 현재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

21) 典客司는 正2品 衙門으로 中國 사신 및 倭人, 野人の 迎接, 外國의 朝貢, 外國의 使臣에 대한 宴享의 設置와 그들에 대한 賜給을 맡았다.

22) 對日關係 謄錄類의 解題로는, 河宇鳳의 『《通信使謄錄》의 사료적 성격』(『韓國文化』 12, 1991), 韓文鍾의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 -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國史館論叢』 86, 1999)가 있다.

23) 慶長期에서 享保期까지의 『信使記錄』 261책이 1999년 4월 <對馬島宗家文書 『朝鮮通信使記錄』>(第1期 2회 배본분, 目錄은 別冊 中 참고할 것)라는 책명으로 간행되었다. 延享期에서 天保幕末期의 분은 2000년 간행 예정이다.

2) 사료집

① 『韓國史料叢書』 가운데 韓日關係 史料集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 등으로 상실된 자료의 발굴과 간행에 힘써 195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45년에 걸쳐 한국사료총서를 간행해 오고 있다. 전근대 대일관계 사료집으로는 『邊例集要』(1970~1971)·『同文彙考』(197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邊例集要』·『同文彙考』는 조선사編修會 때 등사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한국사료총서』는 조선사編修會의 『朝鮮史料叢刊』(1932~1940)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② 奎章閣 소장各司曆錄類(寫本) 가운데 韓日關係 기록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규장각 소장 각종 등록류를 1980년대 이래 '各司曆錄'이라는 명칭으로 간행해 오고 있다. '各司曆錄'이라는 용어는 實錄이나 年代記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를 편찬·간행하면서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委員會는 먼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지방의 각 관아에서 작성한 등록류(地方編)부터 55권(朝鮮8道편, 280책분)으로 간행했는데, 각사등록(지방편)편에는 대일관계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예를들면, 京畿道편(5)에는 「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舉行曆錄」이, 全羅道편(2)에는 「濟州啓錄」이, 慶尙道편(3)에는 「草梁客舍重修錄」이, 경상도보유(1)에는 「東萊府接待」, 慶尙道補遺(2)에는 「慶尙道東萊府商賈節目」이, 경상도보유(3)에는 「東萊府事例」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방편의 대일관계 기록에는 중앙관서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소략하게 취급된 기록들이 들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세기 후반 특히 개항을 전후한 시기의 각사등록(지방편), 특히 경상도 편에는 대일관계 기록이 풍부한 편이다.²⁴⁾

1992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中央各司의 '각사등록'(中央編)에도 對日관계 등록이 약간 수록되어 있다. 예를들면 『各司曆錄』 65(『曆錄類抄』 2)의 10·11에는 <交隣編> 3·4가 수록되어 있다.²⁵⁾ 1656~1703(효종 7~숙종 29)년 까지 대일관계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曆錄類抄』는 『備邊司曆錄』에서 각 기사를 내용별로 분류·발췌한 것이나, 숙종 때까지의 『備邊司曆錄』은 34년분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備邊司曆錄』의 없어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한일관계 등록은 1999년에 『典客司日記』 99책분 가운데서 8책분이 제92권으로 간행될 계획으로 있다. 『典客司日記』의 90% 이상이 한일관계 기록으로 대일관계 등록류는 앞으로도 계속 간행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에는 간행업무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각 업무명으로서의 간행이 아니라 학문의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 연구자에게 사료집 작성을 의뢰하는 프로젝트 성 사료집도 나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8년에는 <韓國史支援 史料集成>의 형태로 『朝鮮·琉球史料集成』 간행된 바 있으며, 조만간에 『韓日關係史料記事索引集』도

24) 羅愛子氏의 發表에서 提示될 것임.

25) 이밖에 『啓抄存安』(『各司曆錄』 63)에는 개항 이후의 대일관계 자료가 풍부하다.

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목록집을 제외한 사료집 간행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료집은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간행되었는데, 영인이 아닌 경우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邊例集要』는 吏讀가 섞인 한문을 표점과 두주의 형식으로 간행한 것이며, 『同文集考』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편집했는데, 둘다 모두 활판인쇄하였다. 『各司騰錄』(지방편)은 처음에는 등사와 구두점만을 찍다가, <중앙편>부터는 여기에 권마다 사료해제를 붙이고 각 기사の内容을 요약한 제목을 달아 이용자의 검색 및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다.²⁶⁾ 또 『朝鮮·琉球史料集成』은 해제·영인을 원칙으로 하였다.

『朝鮮·琉球史料集成』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집들은 활자화했던 騰寫·영인이건 일단 원본에서 한번 옮겨지는 과정에서 誤·脫字의 발생 등, 原本을 毀損시킬 우려가 있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豫算·人員 등의 문제로 인해 사료에 따라서는 騰寫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出版 速度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III. 情報化時代에의 對應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 처리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사료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도 축적된 사료정보를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제공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1990년부터 여러 형식의 사료 정보 데이터 베이스(이하 DB)화를 추진하여 왔다.²⁷⁾ 그리고 1997년 3월부터는 홈페이지(www.http//ns.nhcc.go.kr)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작업이 끝난 부분부터 24시간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일관계 관련 자료집으로는 『對馬島宗家文書古文書目錄集』 I·II(2책)을 인터넷 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컴퓨터 조판으로 간행되었던 까닭에 DB 구축이 쉬웠기 때문에 색인에 따라 검색과 해제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大容量化로 全文텍스트 DB 構築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委員會에서도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미 騰寫가 완료된 『各司騰錄類』(<표 3>의 ○ 부분)는 대규모 情報化事業과 맞물려 근년간에 인터넷 상에서 全文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들어 국사편찬委員會가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畫像資料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對應이다. 이에 委員會는 우선 앞서 언급한 사진·유리필름을 畫像入力(스캐닝)하여 入力資料를 바로 目錄과 接續시킴으로써 특별한 온라인 시스템 없이 인터넷 상에서 바로 原文書의 閱覽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사진·유리필름의 畫像정보화는 일단은 시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마이크로필름 자료까지도 畫像서비스할 예정이다.

26) 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난초는 해서체로 탈초했으며, 구두점을 찍었다.

27) 그동안 委員會가 사료의 전산화를 통해 집적한 DB정보는, 목록 DB가 20만5千件, 이미지 DB가 5만건, 全文 DB는 179책에 이르고 있다.

맺 음 말

이상, 국사편찬위원회의 소장자료 가운데 전근대 한일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사료의 특징을 비롯하여, 간행상황 및 사료정보 서비스에 대해 보아 왔다. 위원회의 일련의 사료 정보서비스를 통해 전근대 한일관계 사료는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편이다. 對馬島宗家文庫는 대일교류사 전공자 뿐만 아니라, 문학·음악·식생활·건축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일본유학이나 국사편찬위원회 연수과정을 통해 일본의 근세문서를 읽을 수 있는 연구자 층이 생겨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석사논문 작성시에도 대마도종가 문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도 한일관계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먼저 國立中央圖書館에 70건의 한일관계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釜山市民圖書館에서도 「古書目錄」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료집의 國譯集이 간행되고 있다. 國譯「增正交隣志」(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98) 및 國譯「通文館志」1·2·3·4(世宗大王記念事業會, 1998)가 그것으로, 특히 國譯「增正交隣志」에는 아주 상세한 주가 달려 있어 거의 對日關係 辭典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빠트린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상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韓日關係 사료 연구에 대한 한 측면으로 史料編纂所의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丑 3> 奎章閣 所藏 對日關係 曆録類 刊行狀況

曆録	収録期間	内容	編纂官署	冊數	奎章閣 請求 番號	委員會		影印本 刊行
						各司 曆録	D.B 對象	
各樣差倭曆録目錄	1637~1731 (인조15~영조 7)	16種の對日關係の曆録の中から主要事項を選んで整理した目錄	禮曹 典客司	1冊	9910			
告訃差倭曆録	1645~1754 (인조23~영조30)	關白・對馬島主の死亡を告知する差倭に對する接待の内容を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896		○	
公作米曆録	1637~1751 (인조15~영조27)	日本との公貿易の代價として支拂する公作米に對する年限の延期要請および運送に對する記録	禮曹	2冊	12968		○	
島主告還差倭曆録 告還曆録	1640~1691 (인조18~숙종17) 1692~1716 (숙종18~숙종42)	江戸參勤を終えた對馬島主の環島を告知する差倭の出來および問慰譯官の派遣に對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禮曹	2冊 1冊	12981 12921		○ ○	
島中失火	1660~1714 (현종1~숙종 40)	日本の本土・對馬島・草梁倭館の火災に對する朝鮮政府の救急内容を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14		○	
東萊府接待曆録	1653~1841 (효종4~현종 7)	通信使請來差倭・護行差倭の出來および彼らに對する接待について當該の接慰官が記録した内容。	東萊府	8冊	18108			
東萊附接倭狀啓曆録可考事目抄冊	1608~1694 (선조41~숙종20)	倭館を中心に展開された對日交渉に對する記録を「東萊府狀啓曆録」から選んで整理。	東萊府	1冊	9764	●		
論賞賜米曆録	1637~1674 (인조15~1674)	歲遣船の減縮など、對日交渉に功をたてた倭人に賜米・受職した内容。	禮曹	1冊	12967			
別差倭曆録	1637~1753 (인조15~영조29)	外交交渉のため、對馬藩が派遣した差倭とそれに対する接待および事案の處理を記録	禮曹 典客司	10冊	12871		○	
書契違式曆録	1637~1686 (인조15~숙종12)	朝日間に往復した外交文書である書契のなかから用語に不恭な部分をはじめ、恒式に背むく部分など、いわゆる違式書契に對する處理を記録	禮曹 典客司	2冊	12885		○	
歲船鷹連曆録	1637~1683 (인조15~숙종9)	歲遣船に賜給する鷹の調達過程。倭人の沙器燻造に必要な物品、匠人の調達を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96		○	
歲船定奪曆録	1637~1677 (인조15~숙종3)	對馬藩の歲遣船の減縮および圖書の交代、歲遣船に對する接待の規程を記録。	禮曹 典客司	2冊	12881		○	
歲船恒式出來曆録	17세기 중엽 18세기 초엽	1609年の巴西約條以後、朝鮮に入國した倭船および各種の差倭に支給した回禮禮單の品目と數量を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77		○	
譯官上言曆録	1637~1692 (인조15~숙종18)	外交交渉の實務擔當者である漢譯・倭譯・清譯などの譯官たちが彼らの差定や譯官遞兒職の復設などを上言した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63		○	
倭館修理曆録	1724~1745 (경종4~영조21)	草梁倭館の修理に對する諸般の事項を記録。 「倭館移建曆録」に連結。	禮曹	1冊	12923		○	

題 録	收 録 期 間	内 容	編 纂 官 署	冊 數	奎章閣 請求 番 號	委 員 會		影 印 本 刊 行
						各 司 題 録	D.B 對 象	
倭館移建題録	1637~1731 (인조15~영조 7)	豆毛浦倭館を草梁に移建するまで、朝鮮と對馬藩との交渉過程と、移建後の倭館の修理記録。	禮曹 典客司	2冊	12982		○	
倭人求請題録	1637~1724 (인조15~경종4)	倭人の求請物品と朝鮮の調達・處理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8冊	12995		○	★
倭人作樂題録	1690~1692 (숙종16~숙종18)	倭館での交好事件および潛商内容と治罪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62		○	
裁判差倭題録	1683~1739 (인조9~영조 15)	朝日間の外交・交易などの懸案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來朝した差倭と各案件の處理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5冊	12957		○	
典客司別題録	1699~1753 (숙종25~영조29)	肅宗から英祖の代までの對日關係に関する諸業務および王命により實施された他の部署との關聯業務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8冊	12961		○	★
弔慰差倭題録	1649~1731 (인조27~영조 7)	朝鮮國王と王妃の死を弔慰するために來朝した差倭と接待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899		○	
陳賀差倭題録	1650~1725 (효종1~영조 1)	朝鮮國王の即位を祝賀するために來朝した差倭と接待に関する記録。	禮曹	1冊	12910		○	
徵債題録	1637~1672 (인조15~현종13)	商賈より負債を徵收するために來朝した差倭およびその處理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965		○	
致賀(差倭)題録	1637~1690 (인조15~숙종16)	討賊の致賀をはじめ、問慰譯官の派遣に對する回賜、對馬藩主の得男を告知するために來朝した差倭と接待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882			
通信使題録	1641~1811 (인조19~순조11)	1643年の癸未通信使から1811年の辛未通信使まで、8回に及ぶ通信使行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4冊	12870- 1・2・3		○	★
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舉行題録	1811(순조 11)	1811年、辛未通信正使が廣州府の板橋站を往還する時の準備・接待に関する記録。	廣州府	1冊	15068		●	
通信使草題録	1786~1808 (정조10~순조8)	外交上の問題および日本の要請により、停止または取消された通信使行に関する草題録	禮曹 典客司	1冊	15067		○	
漂倭入送題録 漂倭入送回賜題録	1637~1692 (인조15~숙종18) 1692~1737 (숙종18~영조13)	朝鮮に漂着した日本人・船舶に對する調査をはじめ、送還手続き、對馬藩主への回賜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冊	12884 12920		○ ○	
漂人領來題録 漂人領來差倭題録	1641~1751 (인조19~영조27)	日本に漂着した朝鮮人・船舶を送還した對馬藩の漂差倭に對する接待、漂流民の處理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7冊 12冊	12956 12954		○ ○	★ ★
回賜差倭題録	1637~1678 (인조15~숙종4)	朝鮮に漂着した日本人の送還や問慰譯官の派遣、倭館の新築にたいする回賜、謝寺差倭に関する記録。	禮曹 典客司	1冊	12883		○	

曆 録	收 録 期 間	内 容	編纂官署	冊數	奎章閣 請求 番號	委員會		影印本 刊行
						各司 曆録	D.B 對象	
典客司日記	1640~1886 (-)		禮曹 典客司	99冊	13052	●	○	
典客司方物曆録	1637~1778		禮曹 典客司	9冊	12876			
接待倭人事例 (東萊事例)	1637~1687 (-)		禮曹 典客司	1冊			○	
濟州啓録	1846~1884		전라도 제주	5책	15099	●		★
草梁客舍重修録	1825~1873		경상도			●		
慶尙道東萊府商賈 等教弊節目	1813~1814		경상도			●		
東萊府事例	1868		경상도			●		